

인구 대비 빈집 최다지역은... 전남 '67.2호'

ECONOMY

2025년 3월 6일 목요일

■ 건정연, 미거주 주택 현황·시사점 분석

1000명당 광주 28.6호·전국 29.9호 대비 2배 ↑ 공유재산 편입 후 임대 활용 등 지자체 정책 제안

전국적으로 인구 대비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 바로 '전남'이다. 전남은 인구 1000명당 빈집 수가 67.2호를 기록, 인접지인 광주(28.6호) 및 전국 평균(29.9호)과 견줘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 등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건설 브리프 내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빈집) 현황 및 시사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광주의 빈집 수는 4만588호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토대다. 전년(3만9205호)과 비교해 3.5%(1383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때 매년 빈집 집계 시작된 2015년(2만6705호)과 견줘 51.9%(1만3883호) 증가했다.

연도별 광주 빈집 추이를 보면 2015~2019년(2016년 2만9127호, 2017년 3만3569호, 2018년 3만7220호, 2019년 3만9625호)까지 2만~3만호 대를 오가다가 2020년 4만1585호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인 2021년 3만3439호로 줄었지만 2022년 3만9205호로 또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전남의 빈집 수는 지난 2023년 기준 12만1232호다. 이는 전년(11만9711호)보다 1.2%(1521호) 증가한 수치다. 또 전국에서 경기(28만6140호), 경북(13만2798호), 경북(12만9041호)에 이어 최다 빈집 수를 기록했다. 전남의 빈집 수 추이는 꾸준히 10만호

(2015년 10만3333호, 2016년 10만2257호, 2017년 10만9799호, 2018년 11만8648호, 2019년 12만1767호, 2020년 12만2103호, 2021년 11만6001호)를 넘어서고 있다. 지역 인구 대비 빈집 수로 따져봤을 때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전남은 인구 1000명 당 빈집 수가 67.2호에 달했다. 인접지역인 광주(28.6호)는 물론, 전국 평균(29.9호)보다 두 배 이상 상회했다. 전남에 이어 강원(54.0호), 충남(53.1호) 순으로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은 비수도권에 '인구 대비 빈집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건정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장기 방치되는 빈집은 주변 주택까지 '빈집화'로 만들 가능성이 높고, 관리 부실로 안전상 문제, 도시 슬럼화, 범죄 유발 지역으로 변질 가능성도 있다. 건정연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지자체는 소유자가 주택을 빈집으로 방치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이 빈집을 관리하는데 경제적·행정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지자체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정비·리모델링 등을 거친 후 저소득층·청년층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혹은 용도를

상업용으로 전환하되 저렴한 대부료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 등도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3년 기준 전국 빈집 수는 전년 대비 약 5.7% 증가한 153만4000가구로 조사됐다. 전국 빈집 수는 2015년 106만8000가구였으나 2016년 112만7000가구, 2017년 126만4000가구, 2018년 141만9000가구 등으로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151만7000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2021년에는 수가 감소하며 2021년 139만5000가구까지 줄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전KDN, 에너지 복지서비스 '따뜻동행' 6월까지 400가구 대상 고효율 LED 조명기기 교체 등

한전KDN은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에너지 복지서비스 '따뜻동행' 브랜드 구축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따뜻동행'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노후 조명기기 교체로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는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과 사회복지시설의 건물 내·외 위험 전력 설비 교체로 전력 사용에 대한 안전을 지원하는 노후 전력설비·가로등 교체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한전KDN은 지난해 '따뜻동행' 1차 사업 수행을 위해 나누시와 협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을 시작해 지난달 완료했고, 오는 6월까지 총 4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점검 및 고효율 LED 조명기기 교체 2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에는 화순 아동

복지시설 장애원을 찾아 시설 내부의 노후 전력 설비와 가로등 교체를 마감하는 준공식을 가졌다. 장애원에는 지난해 12월에 한전KDN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IT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KDN IT움(IT의 씩을 틉우다)'을 구축하고 '따뜻동행'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외부 가로등, 메인 전원설비, 기숙사 전기설비 전수 교체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한전KDN의 자체 에너지 복지사업 브랜드인 따뜻동행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에너지 복지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자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블루밍 라운지서 봄 만끽해요” ㈜광주신세계가 지난 4월부터 1층 광장에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신촌 블루밍 라운지’를 연출하고 고객맞이에 나섰다. 블루밍 라운지는 봄에 어울리는 화려한 꽃으로 가득 채운 포토존과 고객들이 실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봄꽃과 어울리는 향수 브랜드 ‘조 말론 런던’, ‘딤디크’, ‘아쿠아 디 파르마’ 등과 컬래버레이션 한 향기 마케팅을 함께 진행,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아동 매장 리뉴얼 아이리브제이 등 브랜드 입점

㈜광주신세계가 아이들을 위한 트렌디한 신규 아동 브랜드를 유치해 눈길을 끈다. 5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최근 본관 6층 아동 매장 리뉴얼을 통해 신규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등 새단장을 마쳤다. 단독매장으로 첫 선을 보이는 '윌켄(WYNKEN)'은 영국 브랜드로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과 현대적이며 창의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컨템포러리 브랜드다. 윌켄은 오픈 기념으로 30만원 이상 구매 시 선글라스를 선착순 증정한다. '아이리브제이'는 2012년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로 시작해 현재 백화점 및 전국 91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일상 속 친밀한 아이들부터 자제 디자인과 제작을 인정한 일부, 중국 등 해외시장까지 뻗어 나간 국내 브랜드다. 아이리브제이는 오픈 프로모션으로 15만원 이상 구매 시 피니쉬 타일 블랭킷을 증정한다. 가족단위 고객들을 위한 '아랍북스' 입점도 눈에 띈다. 아랍북스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그림책을 제안하는 어린이 전문 출판사다. 본관 6층 매장에는 아이들이 책을 직접 골라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호응이 높다. 플레이스팟에서도 아동 신발 편집매장인 '스텝케어'를 새롭게 선보인다. 스텝케어에서는 수입 아동 신발 브랜드 '보그스', '팀토이조이', '멜리니'와 '다이노킹즈', '페페슈즈', '나리안' 등 다양한 브랜드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뷰티, 아트 체험 클래스 공간인 '디엘프렌즈'에서는 오는 31일까지 고슬라임과 아트 클래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디엘프렌즈 매장에서만 착용이 가능했던 드레스 대여 패키지를 새롭게 운영해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패키지 대여권은 2박3일 간 사용이 가능하며 일상에서 착용 후 매장으로 반납하는 시스템이다. 디엘프렌즈는 체험과 제품 구매 후 영수증 리뷰를 작성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백화점을 찾는 가족단위 고객들이 많은 만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프로모션을 진행해가겠다"며 "아이들이 색다른 경험을 통해 좋은 추억을 갖고 부모도 잠시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5일 광주 1913송정역시장에서 청년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광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노력”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 1913송정역시장 등 방문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5일 광주 1913송정역시장과 광주북구행복아울렛센터를 찾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박성호 이사장은 '연결의 힘, 함께 하는 가치+'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현장행보를 시작, 지난달 서울과 대전에 이어 이날 광주를 방문했다. 광주 소동 간담회는 지역 청년상인 지원성과를 점검하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913송정역시장에서는 시장에 입점한 청년상인들과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성과를 점검하고 예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광주북구행복아울렛센터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영복 광주시 경제정책과장, 배종환 북구 경제산업국장,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형상인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골목형상점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들을 검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신보, 500억 규모 원클릭 스마트보증

업체당 5000만원까지 비대면 대출 실행

전남신보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일터를 비우지 못하는 자영업자에게 재단 방문 없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원클릭 스마트 특별보증'을 5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원클릭 스마트 특별보증은 전국 재단 최초로 현장조사 확인을 제외한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상품이다. 신청대상은 3개월 이상 영업중이고 개인 신용점수가 840점(구 3등급) 이상인 전남도 내 자영업자이며,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 이내이다. 이자는 시중은행 평균금리보다 저렴한 4.4% 이내로 설정됐으며 보증료 절반(최대 30만원 이내)을 지원해 이자와 보증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카카오톡 앱에서 보증신청부터 약정서 작성과 대출실행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강근 이사장은 "원클릭 스마트 보증을 통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 분들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

광주은행, 북구 청소년에 교복 후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5일 광주 북구청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김종훈 영업3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학기 사랑을 입어요' 교복 후원행사를 갖고 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신학기 사랑을 입어요' 사업은 교복과 활동복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신학기 학생들이 도움을 주기 위한 광주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북구청 추천을 받아 10명의 학생에게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금을 지원한다. 김종훈 영업3본부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



지역 중기 지속가능 경영 지원 '맞손'

산인공 광주본부-중진공 호남연수원 협약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과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일자

리 창출 및 재직자 역량 강화 지원, 기업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직무능력 향상 지원, 지역 내 우수·선도 기업 발굴 및 공유를 통한 사업 확장,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국내 적응 지원 등에 협력한다. 전경훈 중진공 호남연수원장은 "연수원이 운영하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산인공 광주본부와 협력, 지역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